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한 학기

건국대학교

김민정

学籍番号 k2590006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에서의 유학 생활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낯설고 두려웠던 것들이 차츰 내 삶의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과정이 귀중한 자산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강했던 강의들의 내용, 방식도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견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편협했던 시야를 확장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확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어 능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강의를 수강하고, 내 의견을 일본어로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본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타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사용되는 어휘, 문형 등을 기억해 두고, 추후 새로 배운 것들을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어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 외에도 친구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주말 동안 여행을 가는 등 이곳에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지역에 방문했는데, 신칸센, 등산 전차, 고속버스, 승용차 등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 도쿄에 있는 독립 영화관을 방문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고 싶었던 극장에 모두 가지 못해 아쉽습니다. 또 오차대가 제휴를 맺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무료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엘 그레코의 작품을 실물로 볼 수 있어 정말 기뻐합니다.

유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신 기숙사 관리실, 국제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유학했던 친구들이 있어 매일매일 즐거웠습니다.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젠 당연한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이곳에서의 반년을 양분 삼아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